



“멋진 삶에 대한 집착 버리니 마음이 한결 더 편해졌어요”

영화 ‘유리정원’ 재연 역 문근영 2년만에 잘 할수 있는 캐릭터 선택 따뜻하고 말없이 위로해주는 영화

문근영(30)은 조막만 한 이목구비에 옛때 보이는 외모를 지녔지만, 올해 나이 만 서른 살, 데뷔 18년 차의 베테랑 배우다.

영화 ‘유리정원’의 주연을 맡은 그를 개봉 하루 전인 24일 서울 삼정동에서 만났다.

문근영은 인터뷰 내내 자기 생각을 조곤조곤하게 말하면서도, 때로 장난기 어린 표정과 해맑은 웃음을 지어 보였다.

‘유리정원’은 숲 속의 유리정원에서 홀로 인공혈액을 연구하는 과학도 재연과 그녀를 흠뻑보며 그녀의 삶을 소설에 담은 무명작가의 이야기를 그린 미스터리 영화다.

문근영은 주인공 재연 역을 맡아 영화 ‘사도’ 이후 2년 만에 스크린에 출연했다. “저는 항상 재밌고, 제가 잘할 수 있는 캐릭터를 선택해요. 이 작품도 처음 시나리오를 읽는 순간 재연이가 어떤 마음인지 알 것 같았고, 직감적으로 해보고 싶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근영은 이 영화에서 순수함의 상징이다. 세상 그를 이용하려고만 하고, 상처를 준다. 그래서 “순수한 것은 오염되기 쉽다” “나무들은 가지를 뻗을 때 다치지 않게 서로 다른 방향으로 뻗지만, 사람들은 안 그래요”라고 항변한다.

문근영은 “처음에는 상처만 담은, 아프지만 영화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다시 영화를 보니까 저를 위로해주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따뜻하고 말없이 토닥토닥 등을 두드려주는 영화”라고 소개했다.

문근영은 재연처럼 가끔 자신만의 유리정원으로 숨어들기도 한다고 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항상 그래요. 집에서 조용히 풀어내거나 가라앉아있는 편이에요. 그럴 땐 아무도 안 만나죠.”

그는 “사람들과 재내는 일이 가장 어려운 것 같다”고 말했다. “상처를 주거나 혹은 받는 것이 너무 견디기 어렵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의무나

책임으로는 다할 수 없는, 그런 섬세한 감정이 있잖아요. 아무리 오래 사회생활을 해도 그런 감정이 쉽게 무뎠어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만 모른 척하거나 아닌 척할 뿐이죠.”

문근영은 1999년 영화 ‘길 위에서’로 데뷔했다. 불과 12살 때였다. 이후 2000년 방송된 ‘가을동화’에서 송해고 아역으로 출연해 ‘국민 여동생’이라는 타이틀을 얻었다. 이어 영화 ‘장화, 홍련’(2003), ‘어린 신부’(2004), ‘댄서의 순정’(2005) 등에서 인상 깊은 연기를 선보였고, TV드라마 ‘바람의 화원’으로 2008년 SBS 연기대상을 받기도 했다.

연기과 배우로 성장했지만, 그에게는 아직도 ‘국민 여동생’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는다.

문근영은 “그런 수식어가 이제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다”면서 “대신 매일 하루하루가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요즘 마음이 한결 편해진 것 같아요. 지금까지 했던 고민의 답을 약간은 찾았거든요. 좀 더 멀리 보면 이 역시 그런 고민의 과정이겠지만요. 무슨 고민이나고요? 사람으로서 배우로서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동안은 ‘어떻게’라는 부분에 너무 많은 의미를 뒀서 ‘잘 살아야지’ ‘멋지게 살아야지’하며 집착 아닌 집착을 했죠. 이제는 ‘어떻게’ 보다는 ‘그냥 살아야지’ 생각하니까 마음이 한결 편해지더라고요.”

그래도 연기에 대한 부담감은 여전히 들었다. 문근영은 “예전에는 아무런 인지도 없이 연기했는데, 이제는 제가 하는 연기, 목소리, 말투, 표정, 눈의 움직임 하나하나까지 인지하기 시작하니까 어려워졌다”고 털어놓았다.

문근영은 올 2월 ‘급성구획중추근’(염증으로 근육에 압력이 증가해 조직이 괴사하는 병)으로 갑작스럽게 수술을 여러 차례 받고 최근까지 활동을 중단했다. 지금은 회복됐지만 당시에는 심각한 상황이었다고 알려져 있다. 어떤 상태였느냐고 묻자 그는 “애기하면 (팬들이) 걱정하실까 봐~”라고 말을 흐렸다. “아프고 나니 적어도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하고 살지는 말아야겠다 싶더라고요.”

문근영은 “원래 건강한 편이고, 크게 아파본 적도 없었는데, 예기치 못하게 병원 신세를 지면서 무척 괴로웠다”면서 “지금은 걱정 안 해도 될 정도로 나아졌다”며 활짝 웃었다.

“여왕의 귀환” 엄정화 1년 만에 컴백

10집 ‘파트.2’ 11월 발매...이효리 피쳐링 참여

원조 ‘섹시 퀸’으로 불리는 배우 겸 가수 엄정화가 1년 만에 가요계로 돌아온다.

24일 음반제작사 미스틱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엄정화는 11월 신곡 5곡이 수록된 정규 10집의 파트.2 앨범을 발표한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파트.1 앨범 ‘더 클라우드 드림 오브 더 나인’(The Cloud Dream of the Nine)에 이은 신보다.

이번 앨범에는 가수 이효리와 가수 출신 배우 정려원이 피쳐링으로 참여했다.

미스틱 관계자는 “정규 10집의 9곡 중 파트.1에서 ‘드림러’(Dreamer) 등 4곡을 공개했다면, 파트.2에서는 5곡을 선보인다”며 “지난주 금요일 뮤직비디오 촬영을 마치고 앨범 작업 막바지 단계에 있다. 아직 방송 활동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엄정화는 데뷔 시절부터 배우와 가수로 활약해 만든 엔터테인먼트로 꼽힌다.

“당신은 너무합니다”, ‘마녀의 연애’, ‘아내’ 등의 드라마와 ‘미쓰 와이프’, ‘관능의 법칙’, ‘오로라 공주’, ‘몽타주’, ‘댄싱퀸’, ‘해운대’ 등의 영화에서 안정된 연기력으로 입지를 다졌다.

가수로는 1993년 ‘눈동자’를 시작으로 ‘하늘만 허락한 사랑’, ‘배반의 장미’, ‘포이즌’, ‘초대’, ‘몰라’, ‘페스티벌’, ‘디스코’(D.I.S.C.O) 등의 히트곡을 냈다.



영화 ‘남한산성’ 전 세계 사로잡다

미국·일본·프랑스 등 해외 28개국에 판매

영화 ‘남한산성’이 미국, 일본, 프랑스, 싱가포르 등 해외 28개국에 판매됐다고 배급사 CJ엔터테인먼트가 24일 밝혔다.

‘남한산성’은 지난 6일 미국 CGV 로스앤젤레스와 CGV 부에나파코에서 선 개봉해 호응을 얻은 데 힘입어 지난 20일 미국 전역 27개관으로 개봉관을 확대했다.

오는 11월에는 대만, 내년 6월에는 일본에서 각각 개봉할 예정이다.

또 지난 19~29일 열린 런던 아시아 영화제에서 개막작으로 선보였으며, 프랑크푸르트 한국 영화제(10.18~10.22), 파리 한국 영화제(10.24~10.31), 아시아 월드 영화제(10.25~11.2) 등 다수의 해외영화제에 초청돼 전 세계 관객의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김훈 작가의 동명 베스트셀러를 원작으로 한 이 영화는 지난 23일까지 국내에서 총 378만 관객을 동원했다.

TV 프로그램 25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5 걸어서 세계 속으로	00 휴먼 다큐 사람이 좋다 스페셜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5 아침이 좋다	00 MBC 뉴스투데이 20 아시아의 전통시장 50 마이리틀 베이비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다큐멘터리 3일 스페셜	30 사람, 산	25 닥터 365 30 달콤한 원수
9	30 KBS 뉴스	00 꽃피어라 달순아 40 여유만만	30 김경식의 영화 대 영화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0 VJ 특공대 (재)	50 20세기 소년소녀(재)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역사저널 그날(재) 50 UHD 한식	55 특선다큐 동물원 이대로 좋은가(재)	00 국제상 수상작 베스트 미래인간 시	00 열린TV 시청자 세상
12	00 KBS 뉴스 12 30 영상앨범 산 (재)	55 제보자들	00 문화사색 50 꾸러기 식사교실	00 SBS 12 뉴스 50 지식총집 55 테마스페셜
1	00 KBS네트워크특선 휴먼터치 인 50 코리아 지오그래픽 플러스(재)			55 닥터 365
2	05 나는 농부다 시즌3(재)	00 생활의 발견 (재) 5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20 텔레몬스터 30 프리파라 2	00 뉴스브리핑
3	00 콘서트 7080(재)	20 TV 유치원 50 여유만만	00 앙코르 MBC 스페셜 (우리가 결혼하지 않는 진짜 이유)(재)	00 SBS 스페셜
4	00 4시 뉴스집중			
5	00 KBS 뉴스 5 10 공감다큐, 사람 30 팔도탐상 스페셜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롤러코스터보이 노리 2 15 스톤에이지 30 트래킹노트 세상을 걷다	00 MBC 이브닝 뉴스 35 살맛나는 세상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40 팔도탐상 스페셜	30 2TV 생생정보	20 MBC 스포츠 2017 KBO리그 한국시리즈 (KIA : 두산)	00 닥터 365 05 고행전문록 남도에 살아리란다 55 지식 총집
7	00 KBS 뉴스 7 35 공감다큐, 사람	50 내 남자의 비밀 (재)		00 날씨와 생활 10 생방송 TV블로그 꿈지락
8	00 KBS광주 연중특별기획 남도스페셜 25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30 글로벌24 55 살림하는 남자들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영재발굴단
9	00 KBS 뉴스9 40 KBS 글로벌 다큐멘터리 -살아있는 지구2			
10	30 KBS 뉴스라인	00 매드독	00 MBC 뉴스데스크 30 병원선	00 당신이 잠든 사이에
11	00 문화의 향기 50 동행	10 발레교습소 백조클럽 스페셜	40 허하랜드	10 내 방을 여행하는 낯선 이를 위한 안내서 1~2부
12	40 인간극장 스페셜	40 세상의 모든 다큐	55 해피타임 명작극장 스페셜	20 나이트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05:30 세계전문록 아틀라스 (매주 문명기행 3부 -태양을 기다리는 사람들)	09:40 글로벌 앵버 찾아 삼만리(재) 10:30 한국기행 10:50 최고의 요리비결 (카레라이프와 우영 강장피클)
06:00 한국기행(재) 06:20 세계테마기행(재) 07:00 용감한 소방차 레이 07:30 똑딱맨 07:45 뽀롱뽀롱 뽀로로 08:00 뽀롱뽀롱 유치원 1~2 08:30 공룡탐험대 고고다이노 08:45 한글이 야호2 09:00 레이디비디 09:30 플랑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2:40 지식채널 e 12:45 EBS초대석(재) 13:40 미래강연 Q (인간의 뇌와 인공지능 1) 14:3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15:00 마사과 꿈 15:30 호기심 나라 오키도
	15:45 레전드하러로 삼국전 16:15 주사위 오징어 큐비즘 16:30 한글이 야호 2(재) 16:45 뽀롱뽀롱 유치원 1~2(재) 17:15 용감한 소방차 레이 17:30 똑딱맨(재) 17:45 뽀롱뽀롱 뽀로로 18:00 생방송 토크톡! 보니하니1~4 19:00 몬카트(재) 19:15 정글에서 살아남기 -마루의 어드벤처 19:30 EBS 뉴스 19:50 장수의 비밀(재) 20:40 다큐 오늘
	20:50 세계테마기행 (불의 땅 울고 고향 캉차카 3부 토드라 유목민의 전설) 21:30 한국기행 (발길 머무는 섬 울릉도 3부 첫눈에 반하고 낭만에 취하다) 21:50 EBS 다큐프라임 (어머니의 강, 메콩) 22:45 극한직업 (인도네시아 동물 사냥꾼 -제비집 채취) 23:35 장수의 비밀 24:25 지식채널e 24:30 미래강연 Q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0월 25일(음 9월 6일 乙酉)

<p>子</p> <p>48년생 분발이 전도 되어서는 절대로 아니 되겠다. 60년생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이익이 따를 수도 있는 하루다. 72년생 나중 에 걸림들로 작용한다. 84년생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현상 앞에서 난감해 하는 양태이다. 행운의 숫자 : 93, 23</p>	<p>午</p> <p>42년생 공과 사는 엄격히 구분 되어야 한다. 54년생 반복하는 것도 무방하리라. 66년생 수확이 늘어나면서 어수선해진다. 78년생 길흉이 교차하면서 부침이 심할 수도 있다. 90년생 쫓대를 가지고 살되 체면을 의식할 필요 없다. 행운의 숫자 : 90, 63</p>
<p>丑</p> <p>49년생 미흡한 점은 완벽하게 보완할 수 있어야 한다. 61년생 아직 실이었으니 먹어 버리다던 일이 즐겁지 못 할 것이다. 73년생 숨은 뜻까지 파악할 수 있는 해안이 절실하다. 85년생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접어라. 행운의 숫자 : 05, 78</p>	<p>未</p> <p>43년생 폭 넓은 시각으로 대응 하는 것이 용이하다. 55년생 안전을 도모한다면 대고를 면할 수도 있다. 67년생 밤심하고 다니다 면 걸림들에 넘어질 수도 있다. 79년생 그늘에 고기가 많이 잡힌다. 91년생 조급해 할 필요는 없다. 행운의 숫자 : 71, 51</p>
<p>寅</p> <p>50년생 직접 접해 보아만 얻는 바가 있느니라. 62년생 현상 유지 만 하여도 선방한 것이다. 74년생 핵심적인 내용을 빼뜨릴 수 있으니 차분해야 할 것이다. 86년생 천성과 습관이 걸림들로 작용하여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04, 32</p>	<p>申</p> <p>44년생 실효성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용이하다. 56년생 이전의 판국과 반복 되면서 쉴 틈을 주지 않는다. 68년생 사냥누각에 불과할 것이니 아예 기대하지 않는 것이 낫다. 80년생 과용한다면 오히려 부작용을 낳게 하리라. 행운의 숫자 : 94, 90</p>
<p>卯</p> <p>51년생 말로만 끝낸 일이 아니라 실행해야만 산골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됨을 알라. 63년생 전폭적인 성원이 발전의 촉매제가 된다. 75년생 염려할 정도는 아니다. 87년생 이루는 것보다 유지 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이다. 행운의 숫자 : 54, 19</p>	<p>酉</p> <p>45년생 장차 행운이 따를 것이니 확신을 가지고 일해도 되느니라. 57년생 옛 인연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니 그에 따른 준비를 하자. 69년생 기본적인 것은 그대로 유지해 나감이 좋다. 81년생 활용하지 못한다면 참으로 무의미하다. 행운의 숫자 : 21, 37</p>
<p>辰</p> <p>52년생 뻥뻥 다 알고 있으면서도 달래미에 빠질 수 있느니라. 64년생 후회할 때는 이미 늦을 것이니 주도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76년생 다중적인 복합 기능이 경제적이다. 88년생 주관적인 심리를 절제할 수 있어야겠다. 행운의 숫자 : 49, 97</p>	<p>戌</p> <p>46년생 상황 윤리에 따르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고 본다. 58년생 실제보다 훨씬 돋보일 것임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70년생 진행하는 과정에서 점차 실마리를 찾게 된다. 82년생 중차대하고 필수 불가결한 상황에 이르렀다. 행운의 숫자 : 20, 98</p>
<p>巳</p> <p>53년생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아야만 한다. 65년생 효과와 기능을 배가하는 특별한 상황이 설정 되리라. 77년생 요령보다 원칙을 따르는 것이 목적 달성을 더 용이하게 한다. 89년생 잡음이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유리하다. 행운의 숫자 : 87, 67</p>	<p>亥</p> <p>47년생 전적으로 신뢰하기에는 미흡하다. 59년생 원래 마음먹은 대로만 행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71년생 작은 흥취이 결정적인 패자의 원인이 된다. 83년생 진분과 신용도는 전혀 다른 개념임을 알고 냉철하게 임하라. 행운의 숫자 : 42, 45</p>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회원” ☎010-9790-8237